

도민 삶 녹아든 지역 공동체 기반 참여형 미술관으로...

'개관 5주년' 전남도립미술관, 2026년 운영 청사진

남도 수목 세계화, 동시대 미술 담론 확산, 참여형 미술관 구현 골자 '바다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등 지역·세계 흐름 잇는 기획 대거 포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학술 연구 활성화

전남도립미술관이 2026년 개관 5주년을 맞아 '지역 공동체 기반 참여형 미술관'이라는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미술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남 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온 성과를 발판 삼아 도민의 삶과 밀착된 지속 가능한 공공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지난해 전남도립미술관은 동·서양 블랙 미학을 교차 조망한 'BLACK & BLACK'을 비롯해 전쟁의 현장을 주목한 'Occupy', '래리 피트먼' 전 등 굵직한 국제 전시를 통해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지역에 소개했다.

국제 교류도 활발히 진행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순회전 '마나 모아나'를 유치했으며,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 박물관, 파리시립아시아 미술관, 프랑스 국립현대미술센터, 한스 아르통 재단, 리움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기관과의 협력으로 전시의 외연을 확장했다.

지역 미술 연구 분야에서는 '강종열·동백, 시간의 얼굴', '김선두·색의 결, 희의 숨', 청년작가전 '사라진 문물 두드릴 때'를

통해 전남 미술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 특히 '오지호와 인상주의'전은 제2회 월간미술대상 우수전시로 선정돼 미술관의 기획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소장품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백남준, 요셉 보이스 등 플렉서스 거장들의 작품이 포함된 고 정기용 컬렉션 99점을 비롯해 총 116점(총 177점)의 신소장품을 확보했다. 이는 2021년 이견희 컬렉션에 이은 또 한 번의 소장품 질적 도약으로, 오는 2026년 상반기 소장품전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어린이날 프로그램과 다각각 워크숍 등에 5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성인 대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참여형 어린이 전시 '기다려 - 색!' (왼쪽), 'Occupy_ 우리는 연결되고, 점유한다' 전시 전경

상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문화 학습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연간 약 2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했다.

올해 미술관은 ▲남도 수목의 세계화 ▲동시대 미술 담론의 확산 ▲참여형 미술관 구현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먼저 남도 미술의 뿌리인 수목화의 현대적 재해석에 힘을 쏟는다. 김선두·허달재 초대전과 남도 천년의 문화 자산을 다룬 '천년의 보물'전을 선보인다. 특히 전남·상하이 교류 30주년을 기념해 상하이 중국미술관에서 'BLACK & BL ACK' 순회전을 개최해 남도 수목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한다.

동시대 미술 담론 분야에서는 원주민 전통문

화를 조명하는 '인디저너스 아트' 전시와 전남 국가 AI 컴퓨팅센터 건립 기념 '최첨단 융복합 전시'를 준비 중이다.

또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바다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청년 작가 국제 교류전 등 지역의 특수성과 국제적 흐름을 잇는 기획들도 대거 포진해 있다.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미술관의 내실도 다진다.

개관 5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전남 미술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 재개관 예정인 분관 '아산조방원미술관'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여수 출신 손상기 화백과 유럽 앵포르멜 거장 장 포트리에를 연결하는 기획

전은 지역 미술을 세계 미술사적 맥락에서 재조명하는 상징적인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유모차 데이', '실버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성인 아카데미의 세분화·전문화로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욕구에 대응한다. 750여점의 소장품을 표준화된 시스템(UMSS)으로 관리해 공공성 또한 확보할 계획이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오늘날 미술관은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하는 공공 플랫폼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2026년은 관람객 중심의 참여 공간 확대와 다층적 콘텐츠를 통해 지역과 예술을 긴밀히 연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소나무로 풀어낸 치유·위로의 서사

소나무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온 변재현 작가의 13번째 개인전 '송암 아리랑'이 오는 2월28일까지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스카이장례식장 내 '아트스카이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 새 단장 오픈을 기념해 마련된 초대전으로, 변재현 작가의 소나무 연작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최근 건물 전체를 미술관처럼 새롭게 단장한 아트스카이갤러리는 일상과 애도의 공간에 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간을 찾는 이들에게 위로와 사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미술을 매개로 한 전시 프로그램이 기획됐고, 그 첫 자리로 변재현 작가의 개인전이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15년간 이어온 '송암-아리랑' 연작을 중심으로 한 소나무 작품들이 소개된다.

화면 속 소나무는 곧고 반듯한 형태보다 휘어지고 뒤틀린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척

변재현 작가 '송암 아리랑'展...내달 28일까지아트스카이갤러리



아트스카이갤러리 '송암 아리랑' 전시 전경

박한 환경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생명력과 유연함이 담겨있다.

작가는 이러한 소나무의 형상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정서, 그리고 견뎌온 시간의 흔적을 상징적으로 풀어낸다. 작품 속 소나무는 단순한 자연 묘사를 넘어선다. 비탈진 언덕이나 바위산에서도 힘차게 뿌리내리는 줄기와 하늘을

향해 뻗어가면서도 서로 어우러지는 가지의 움직임은 강인함과 포용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변재현 작가는 "곧게 자란 소나무보다 굽고 뒤틀린 소나무에서 더 큰 생명력을 느낀다"며 "그 굴곡의 선을 따라가다 보면 오래 버텼을 시간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붉은 말', 예술로 새해를 밝히다

은암미술관, 오는 22일까지 신년기획전 '불의 말, 시작의 불'展

새로운 시작과 재생의 에너지가 시각예술로 펼쳐진다.

은암미술관은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오는 22일까지 연시 기획전 '불의 말, 시작의 불'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火), 속도, 생명력, 변화라는 '붉은 말의 해'의 상징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회화와 조형 등 다양한 장르 작품을 통해 예술가들의 도전 정신과 창작의 불꽃을 조명하며, 동시대 사회에 필요한 희망과 활력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전시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품을 포함해 국내외 작가 10인 내외가 참여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인 유종옥·임만혁·한선현·신상호 작가 작품 4점을 비롯해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강일호·노정숙·허달용·허진 작가가 함께한다.

여기에 몽골 작가 인치오치르 남하이장잔,



유종옥작 '조령말 사랑'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바트수호 소년바야르의 작품도 소개돼 지역성과 국제성이 교차하는 다층적인 전시 구성을 선보인다.

채종기 은암미술관장은 "시민들이 예술을 통해 새해의 에너지와 영감을 채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